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광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민·자원봉사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사진은 최근 발대식을 가진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학생 자원봉사단.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 U대회 유치위 자문위원 김철주 교수

“대학생들 자발적 참여 자원봉사 활동 절실”

“광주시가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유치전에 늦게 뛰어 들었지만, 시민들의 대회 유치 열기는 경쟁도시인 러시아 카잔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2013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철주(53·조선대 체육학과) 교수는 27일 “U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대한체육회 사무차장으로 일하던 지난 1998년, 2003년 대구 하계 U대회 유치를 성공으로 이끈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다.

중국 선전과 카잔의 2011년 하계 U대회 유치전을 지켜봤다는 그는 “카잔이 중국 선전에 고배를 마신 것은 시민들의 폭넓은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때문이었다”며 “U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의 역량이 결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 하계 U대회 유치위원회와 함께 국제 대학스포츠 연맹 실사단을 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는 “U대회를 주관하는 국제대학스포츠 연맹에서도 광주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오는 5월1일 광주를 방문하는 실사단을 시민들이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대회 유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U대회가 대학생들의 스포츠 재전입 만큼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 활동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시민들의 열정 ‘감동’을 선사하라”



<제 2부>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① 자원봉사가 성패 가른다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회 개최를 열망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들의 열정이 필요충분 조건으로 꼽힌다.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유치에 나선 광주시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 8일 광주를 방문한 조지 킬리안(Killian)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장등 “하계 U대회 유치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열기와 노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광주에서도 2013 하계 U대회 유치를 염원하는 서명에 참가한 시민이 100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대회 유치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또 각 구청별 유치지원 대회와 잇따라 열린 데 이어 U대회의 주역인 대학생 자원봉사단도 출범, 활발하게 유치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U대회 개최 열기를 오는 5월1일~5일까지 광주를 방문하는 FISU 실사단에 ‘감동’으로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다.

역대 개최국들은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뜨거운 유치열기를 FISU실사단에

인 봉사활동을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참가국 선수들에게 개최 도시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다.

지난 2003년 U대회를 치른 대구시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1만여의 자원봉사자들과 2만15천여명

구청별 유치지원 대회...5월 실시, 깊은 인상 남겨야 1국가 1서포터즈 효과...자원봉사 성공대회 밑거름

가 전달함으로써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대구(2003년)와 터키 이스미르(2005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2009년) 등도 모두 시민들의 열정과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를 유치했다.

이같은 자원봉사자들과 서포터즈들의 열정적

의 참가국 서포터즈들의 열성적인 활동은 대구 시민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전세계 대학생들에게 알리며 ‘지하철 참사’로 실추됐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는 성과로 돌아왔다.

대구시는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수, 시민,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참여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대구시는 U대회를 시민과 함께하는 대회로 만들기 위해 동 단위로 구성돼 있는 135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해외진출 기업체, 각종 사회·종교단체, 일반 시민을 하나로 묶는 1국가 1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07년 방콕 U대회 성공의 비결도 자원봉사자의 힘이었다. 당시 조직위원회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무려 1만2천여명이 지원했다. 당시 조직위가 필요인력으로 추산한 자원봉사자가 8천명이었음을 감안할 경우 폭발적인 호응이었다. 이같은 열기가 대회 유치는 물론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밑거름이 됐음은 물론이다.

2005년 U대회를 개최한 터키 이스미르도 자원봉사 모집과 운영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힌다.

광주 하계 U대회 유치위원회 집행위원인 김철주(53·조선대 체육학과) 교수는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오는 5월1일 광주를 방문하는 FISU현지 실사단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회 유치의 관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대구 U대회 때 시민들은 1국가별 1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미국선수들과 어울려 울음을 하는 시민서포터즈.

제11기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07년 12월 31일 현재). Includes financial statements and company information for N MEDIA.

대인동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들임. 상가 전문소개매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일가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매도. 금남로 대로변 단지 231㎡(70평) 5층 20억. 송정로 단지 2307(70평) 5층 18억.

상문랜드공인중개사. 빌딩. 단지 600 건물, 352 보석/월세3. 100만원(지역최고상권)용지12억.

대지공인중개사. (공정 책임중개) 현 010-8572-8985. 구합니다. 시골유수주거지.

2008년 국비지원 훈련생 모집. (모집기간 : 3월 31일까지). 과정: 전자정보Technician, Office automation. 모집대상: 만 15세이상~65세 미만.